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김 치 완 *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로컬리티 담론의 비판적 검토
Ⅲ. 로컬리티 담론으로서 제주학 연구 현황
Ⅳ. 제주학 연구로서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가능성과 방향성
Ⅴ. 나오는 말

국문요약

오늘날 우리 학계에는 융복합과 로컬리티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담론들은 인간의 욕구와 현전성(現前性)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융복합과 로컬리티의 이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로컬과 글로벌, '학적 지식(episteme)'과 융복합 사이에서 상호조화를 이루는 대대적(對待的) 관계가 아닌 상호대립적 관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탐라문화(耽羅文化)』에 실린 기획특집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 로컬리티 담론의 핵심인 다원성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중원리에 충실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38호가 발행된 『탐라문화』에 게재된 국내철학전공자의 논문은 전체 게재물 379편 가운데 8편으로 2.11%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제주의 특이성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거나 제주 출신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큰 로컬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제주라는 작은 로컬을 대상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로컬이 글로벌화할 수 있는 주요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와 제주인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앞으로 얼마 동안일지 모르는 시간 속의 한 좌표인 '지금'과 한반도 서남단의 도서라는 공간과 한·중·일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공간 속의 한 좌표인 '여기'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좌표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언제나 '지금, 여기'인 좌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간의 경계를 기반으로 한 구체성도,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보편성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밀한 반성과 구체적 실천이 곧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목표이자, 글로컬(Glocal)의 이상이다.

주제어 : 제주학, 탐라문화,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로지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학계에서는 학제 간 융복합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융복합 담론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발전한 디지털 기술이 시공간적 제약을 눈에 띠게 약화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총합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기대가 산업의 융복합을 불러일으키고, 산업의 융복합은 기술의 융복합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식산업사회, 곧 지식 정보가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자연히 지식의 융복합이 요구되고, 학제간의 융복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손동현, 2008: 231쪽).

이런 융복합의 담론은 세계화-로컬리티 담론과 이론적 맥락을 같이 한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영역에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면서 자본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자본의 세계화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이념을 통해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상호이해 속에 다원성, 복합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한 세대 전에 제기되었던 종속이론 내지는 중심/주변론의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로컬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성공간으로 격상시켜, 전지구화가 야기한 문제점과 모순들을 중심이 아닌 로컬의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로컬리티 담론이 그려내는 장밋빛 미래다.[1)]

이렇게 보면 학제간 융복합이나 글로컬리즘의 혼종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처럼 생각된다. "분업화와 더불어 지식의 분화가 진행되던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대체로 여러 지식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손동현, 2008: 231쪽)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로컬인의 보다 나은 삶을 앞당기는

1) 장희권은 문화영역에서 벌어지는 세계화가 정치, 경제영역의 세계화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글로벌 문화는 문화제국주의가 아닌 글로컬 문화(glocal culture)가 된다는 이동연의 주장과 이와 유사한 아라준 아파두라이의 이동배치 이론을 소개했다(장희권, 2009: 171-173쪽). 그런데 장희권의 논문 전체 요지를 보면 본문에서 작은따옴표로 표시한 스튜어트 홀(S. Hall)의 입장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동연, 아라준 아파두라이, 아리프 딜릭(A. Dirlik) 등의 낙관론, 신중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것을 목표로 한다"(장희권, 2009: 182쪽)는 책무를 떠안은 이른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은 "현장의 실제 거주인들, 다시 말해 로컬인들의 행동범위와 특성을 파악하되, 그 접근 시각이 지배자의 담론이 아닌, 로컬인이 주체가 되는 관점"(장희권, 2009: 181-182쪽)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로컬인들의 시공간은 이미 중심/주변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있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조차도 경계가 허물어져 뒤섞인(혼종)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심/주변의 경계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이상이라고는 해도, 융복합과 로컬리티의 이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중심/주변의 경계 허물기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대를 다문화적(multi-cultural), 교류문화적(inter-cultural) 시대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로컬리티의 담론을 촉발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로컬과 글로벌, '학적 지식(episteme)'과 그 융복합 사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대대적(對待的) 관계가 아닌 상호대립적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근대에 이성의 원리를 보편으로 제시했지만, 이 근대 이성의 자기 전개가 오히려 야만으로 귀결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신승환, 2009: 173쪽).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컬리티와 융복합이 배타적인 보편 이성이 아닌 의사소통적 이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 의사소통적 이성이 결여한 존재론적 지반을 인간의 존재 전체, 곧 생명성에 근거한 탈근대적 이성에서 찾을 때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신승환, 2009: 173-174쪽).[2)]

2) 여기서 신승환은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의 주장을 빌려, 근대적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생명체로서 인간과 그러한 인간이 가진 의사소통적 이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류지석은 「로컬리톨로지를 위한 시론 -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로지」에

이렇게 로컬리티나 융복합, 또는 통섭 등은 이상적 개념이기는 해도, 중심/주변론의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로컬을 '지방-지역'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로컬리티를 '지역성'이라고 번역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3] 더구나 그런 논의가 발생하고 전개된 미국도 유럽도, 호주도 아닌 한국의 로컬리티를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다.[4] 왜냐하면 세계의 주변인 한국에서도 주변부로 취급되어온 지역의 로컬리티를 찾는 일은 자칫 '주변부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5]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 시대 로컬리티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로컬리티 담론은 기존의 중심/주변론에 기초한 지역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표방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이상, 현실적 음모가 뒤섞인 멜팅팟(melting pot)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담론이 로컬리티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로컬리티 담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기존 제주학 연구의 현황을

서 칸트의『순수이성비판』의 한 구절을 패러디해서 "로컬리톨로지가 없는 로컬리티 연구는 맹목이고 로컬과 로컬리티의 구체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로컬리티 담론은 공허하다."고 말한 바 있다(류지석, 2009: 154쪽).

3) 그래서 신승환은 로컬리티를 '현장성(現場性)'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앞의 글, 176쪽). 그런데 로컬리티를 현장성이라고 번역하면, 글로벌 내지는 중심은 현장(現場)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서 오히려 로컬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4) 장희권은 문화 영역의 세계화는 냉전시대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초국가적 지위를 획득한 미국이 정치 영역의 세계화를 가속시키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문화 연구가 학제간 체제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화는 각 나라마다 독특함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연구를 답습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문화연구의 발단과 배경, 그 방법론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면 우리 방식대로 취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장희권, 2009: 171-172쪽, 178-181쪽).

5) 허남춘은 제주가 지역적으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이므로 소외의식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변부성'을 제주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비판하면서, 모든 지방은 제각각 중심이고, 그런 사고에서 출발해야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허남춘, 2007: 340-341쪽).

통해서 검토해보려고 한다. 특히, 제주학 연구에 있어서 뚜렷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탐라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과의 제주학 연구자들이 제주학 연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주의 로컬리티 담론에 있어서 철학사상분과가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찾으려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Ⅱ. 로컬리티 담론의 비판적 검토

로컬(local)은 우리말의 지역-지방-국지(局地)에 해당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로컬이나 로컬리티(lcocality)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지방'이라는 용어에 비해서는 '지역'이 수평적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선호할 때 벌써 상하위의 종속적 개념으로서 지방이 담론화 되어버리기 때문이다.[6] 그리고 이념상으로 경계를 벗어났다(탈경계)고 한다면, '지역'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로컬-로컬리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로컬리티 담론의 지향성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류지석, 앞의 글, 138쪽).

실제로 로컬리티 담론의 주요 개념인 로컬을 지역-지방이라고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쓰더라도, 이것을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로컬

6) 이명수는 로컬, 로컬리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이유를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용어가 본질적 함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적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식 경계에는 서울이나 중앙의 가치에 무의식적으로 향해 있어서 이를 탈피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이명수, 2010: 48-49쪽).

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시공간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로컬리티 담론을 끌어나가는 학자들마저도 전통적 지역학의 대상인 국가 내지는 지역, 하부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컬리티도 '로컬의 사회·경제조직과 활동이 시간·공간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형성된 사회·경제 공간은 로컬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틀(frame)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정의조차도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7)]

잘 알고 있듯이, 로컬리티 담론 이전에도 지리적, 행정적 단위로서의 지방/지역에 관한 연구는 문화,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로컬리티 담론을 이끌어 나가거나 동참하는 연구자들은 로컬리티가 전통적 지역학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 지역학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고유하다고 생각해서 그 특성을 그대로 기술하려고 했던 데 비해, 오늘날의 로컬리티 담론은 개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화(체계화) 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전통적 지역학에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자연·인문적 조건이 서로 결합되어서 지역의 특성이 형성된다고 본 데 비해, 오늘날의 로컬리티 연구에서는 각 로컬리티가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8)]

---

7) 박규택에 따르면, 로컬리티 연구에서 로컬리티 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로는 Cooke, Massey, Cox 등이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로는 Cochrane, Ducan and Savage, Smith, Cochrane 등이 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가능한 이유는 로컬리티 담론이 다양한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비해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Ducan and Savage 같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는 '로컬리티는 거의 수사학적 개념인 동시에, 도시 및 지역 연구를 공간결정론으로 후퇴시키려는 위험한 개념이므로, 로컬리티 대신에 사례연구지역, 소도읍(towns), 노동시장지역, 지역, 장소, 공간적 변이 등과 같은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박규택, 2009: 118-121쪽, 136쪽).

물론, 전통적 중심/주변론에서 주변부로 규정되었던 지방-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주제의식을 가진 로컬리티 담론은 상당히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specificity)이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그러한 공간적 변이와 구체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현장(現場)으로서 로컬(local)이 주목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사실상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거나 공간결정론(spatial determinism)을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계를 가진다(박규택, 2009: 122쪽)고 하더라도, 지방-지역의 입장에서는 로컬리티 담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곧, 경제 정치 면에서 시작해서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화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대응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래 로컬리티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그것에 따른 공간적 변이(spatial variations)를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론적 바탕은 구조화론(structuration)과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 있다(박규택, 2009: 124쪽).[9]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의 구조화론은 구조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2009. 8. 27.에 개최된 좌담회에서 지리학 전공인 손명철교수는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를 '전통지역지리학'과 '신지역지리학'에 가까운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이재봉 외, 2009, 4-5쪽). 본문에 소개한 내용은 지리학에 기초한 구분이지만, 로컬리티 연구가 기존의 지역학과 차별되는 점을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9) 박규택은 여기에서 각주로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틀로 포스트모더니즘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본문에서는 로컬리티의 토대이론을 구조화론과 비판적 실재론으로 특정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로컬리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밝힐 것이므로, 여기서는 박규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둔다. 이하 Giddens의 구조화론과 Bahskar의 비판적 실재론에 관해서는 박규택의 논문 124-130쪽의 '로컬리티의 토대이론'을 참조할 것.

와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이중성(duality)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와 같은 사회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렇게 재생산된 사회구조는 시간화・공간화(temporalized and spatialized) 되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로이 바스카(Roy Bahskar, 1944-)의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성(reality)이 경험, 현실, 실재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이 세 영역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뿐더러,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사회 활동과 구조, 그리고 시공간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결합되기 때문에, 인문학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논리적으로 지리적・역사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판적 실재론을 기초로 한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로컬리티 연구는 우연(contingent)-필연(necessary), 구체(concrete)-추상(abstract), 로컬(local)-글로벌(global)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힘(supra-local structural powers)과 능동적 정체성 또는 영향(proactive locality or locality-effect)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층위가 내부에서 각각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층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박규택, 2009: 128-129쪽). 물론, 세부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통적 중심/주변론에서 단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힘의 논리가 쌍방향 또는 관계망을 타고 입체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긍정한다는 점만으로도 로컬리티 담론은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로컬리티 담론은 지역과 지역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여기(hic et nunc)'[10]의 생동하는 특성, 곧 글로벌의 추상적이고 필연적

인 관계를 우연적이고 구체적인 시공간인 로컬이 자신의 조건 또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특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로 特定되는 시공간은 경계 나누기에서 탈피한 가역적(可逆的) 시공간이므로,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가 말했듯이 글로벌의 관점이라고 해서 추상적(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로컬의 관점이라고 해서 구체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11]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로컬은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부, 우연적 사건이 발생하는 불완전한 장(場)으로서 '있지도 않은 추상성(보편성)'을 찾아내지 않아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은 로컬리티 담론이 여전히 글로벌/로컬이라는 이원론(dualism)에 기초하

---

10) '지금, 여기(hic et nunc)'는 루가복음 4장 21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 예수의 선포(kerygma)에서 비롯된 신학용어다. 성서에서는 구약성서인 마카베오기 하권 1장 6절 'Et nunc hic sumus orantes pro vobis(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에서 '여기 지금'이라는 용어가 연칭된 것을 볼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나라, 또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때 거기(eo tempore et ibi)'에서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취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경우는 구원론 또는 종말론(eschatology)의 용어인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not yet)'과 연결되는데,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전례적(典禮的)으로는 예수의 구원사건이 매년 되풀이 되고, 특히 미사 때 사제에 의해서 그 사건이 선포되는 순간 성취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의 차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그때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선포의 경험이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재현됨으로써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에 들어서는 현상학과 실존철학에서 이 용어를 존재의 실존 양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는데, 로컬리티 담론에서도 이 용어를 로컬의 현장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로컬의 현장성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지금 여기'의 용례는 '이상봉(2009),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의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4-45쪽을 참고할 것.

11) Sayer의 관점에 대해서는 <Sayer, A.(1991),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ing A*, Vol.23>를 참조할 것.

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한다(박규택, 2009: 129-130쪽). 그리고 로컬리티 담론이 국가 또는 로컬 상부의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 공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로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수사학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글로벌 또는 로컬 상위의 구조적 힘이 로컬에 일방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부의 대항논리[12]를 해체시키려고 로컬의 능동적 역할(proactive locality) 또는 효과(locality effects)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착시효과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틀은 근대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반성을 기초로 한 근대성 극복의 테제(These), 곧 탈중심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판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그런데 계몽주의적 이성의 이해를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대의 기획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조차도, "근대의 우월함을 전제하며 근대 이성의 정합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의사소통적 이성은 존재론적 지반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자리한다."(신승환, 2009: 174쪽)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12) 고지현은 「지구화와 국민(민족)국가 - 경계의 문제」에서 "근대 이후 세계 분할에 따라 구축된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식민지인들을 유럽적 가치로 타자화 했고, 이와 같은 비유럽적 타자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유럽적 정체성 자체를 정초하고 또 유지하는 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중심과 주변의 이원론적 배제논리는 식민화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 그리고 계급투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한 형태로 표면화된 주변부의 투쟁은 주로 중심의 외부화에 대한 대항으로 집중된 것"이라고 보았다(고지현, 2010: 15쪽).

흔히 서구의 근대는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보편적인 진리의 준거로 주장한다'는 말로 규정된다. 인간을 타자(他者)와 구별된 단독자, 곧 개체(individual)로 이해한 것이 근대의 특징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에 바탕을 둔 중세의 질서가 파국을 맞이하면서, 해체되는 보편성을 대체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체의 합리적 이성의 보편성'을 준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보편적 진리의 준거로 설정할 때, 자신은 중심부로 설정되지만 자신 이외의 철학적 원리는 주변부가 되어버리므로, 주변부의 소외 또는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로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의 제국주의적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의 기획은 세계의 보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동일성은 다원적 세계를 부정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화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근대의 기획은 그 자체로 차이와 주변부에 대한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근대의 기획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리면서, 차이와 주변부에 대한 억압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근대, 곧 유럽의 역사적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개체로서의 인간의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이념적인 충족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결코 보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될 체제가 아니지만, 19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 체제가 승리를 거둔 이래 자본주의의 보편성이라는 환상이 이어지고 있다(신승환, 2009: 161쪽). 결과적으로 근대는 개체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일원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전근대적·야만적인 차이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모순을 낳게 된 것이다.[13] 이런 모순에 주목한 비판철학자들은 근대의 기획을 수정하

13)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 1930-1969)는『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7)』에서 근대의 산업화가 물화(物化)

고 보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대의 기획 자체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 극복의 노력이 탈경계-탈중심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테제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성 논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은 몸을 지닌 생물학적 존재이므로 생물학적인 조건과 한계, 그 매개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적이며 철학적 존재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층위를 지니는데, 자신의 존재성에 따른 매개를 통해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탈중심성은 이중적이다. 자신의 존재와 중심성에 자리할 수밖에 없으면서 관계적 존재로서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중심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일원성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고, 나의 중심성을 보면서도 타자의 중심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승환, 2009: 175-176쪽).

이런 맥락에서 보면, 로컬리티 담론은 이중적 의미의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로컬리티 담론에서 로컬은 지역적 조건과 한계, 그 매개를 제공하는 시공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런 지역적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인문학적 반성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문학적 반성의 공간으로서 로컬은 자기 동일성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중심성을 찾고 유지하면서도, 다원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타자(他者)의 중심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열린 관계'의 현장이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면서 타자(他者)의 중심성에서도 벗어나는 다원적 탈중심성이 지향되는 '탈경계'의 현장이 된다.

하고 양화(量化)하는 사유를 낳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불리는 비판철학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 세계체험의 근본이 되는 시공체험 양식이 달라지고 … 여기에 "공동체적 삶의 유목화" 현상이 나타난다. 가장 넓은 영역에서의 이 현상이 곧 세계화다. 개인의 삶에서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인격적 인간적 사적 관계가 축소, 약화, 피상화 된다. 개인의 고립화 현상이 심화된다. … 사회 구성원의 개체화가 강화된다. 그 대신 익명적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 해체가 늘어난다. 공동체 삶에서는 계층의 다원화,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조직의 탈위계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된다. … 중앙과 주변이 구분되고 주변은 중앙으로만 연결되어, 정보가 집중되는 중앙이 주변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중앙집중화적 조직에서 정보를 고루 공유하는 모든 노드(node)가 서로 연결되어 어떤 노드도 지시통제를 하거나 받지 않는 분산적 네트워크로 바뀐다(탈중심화). 그 결과 사회적 활동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조직의 그 폐쇄적 독자성이 와해되는 가운데 개방적 관계가 지배한다(탈영토화)(손동현, 2008: 236쪽).

그런데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어울리지만(탈중심; 和) 같지는 않다(자기 동일성; 不同)'를 뜻하는 유가(儒家)의 '대동(大同)' 개념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보편성에 근거를 둔 가치추구가 타자(他者)의 고유한 내재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의 환기시킨 도가(道家)의 다양한 안티테제(anti-these)들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컬리티 담론을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에서는 심심찮게 '생명', '생태계', '대안담론'이라는 말과 함께 '동양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양적 담론이 '근대의 기획'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담론이 될 수 있다거나, 비판철학자들이 말하는 실천을 윤리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서양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이해 뒤에는 알게 모르게 오리엔탈리즘적 제국주의 시각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14]

하지만 근대의 종언을 고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은 거대담론에 의

해 파편화된 조각들 속에서 대항할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면서도 그것을 거대담론, 체계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15] 이런 점에서 로컬리티 담론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경계에서 경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로컬리티 담론을 세계화 논리 속에서 지역-지방의 무장해제나, 반대로 지역-지방으로 파편화 된 가치의 고집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가역적(可逆的)이고 따라서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현장에서 인문학적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Ⅲ. 로컬리티 담론으로서 제주학 연구 현황

1996년 1월부터 제주도연구회(濟州島硏究會)가 제주학회(濟州學會)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제주학은 섬이라는 지역적 공간성[16]을 기초로

14) 오리엔탈리즘적 관점 가운데 하나가 동양을 윤리학 내지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의하는 것이다. 관념론의 입장에서 말하면 인식론과 존재론이 누락되어 있으며, 유물론의 입장에서 말하면 노예제 봉건 지배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층위에서 '자발적'이라고 오해된 복종을 말하는 데 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동양학적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학(實學)'이라고 규정하지만, 여기에서는 서양의 근대-탈근대 논리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인용해둔다. 관련논의는 '김치완, 2011: 249-276쪽'을 참조할 것.

15) 장 프랑수아 리오따르(Jean-Francois Lyotard)는 『포스트모던적 조건(La condition postmoderne)』에서 계몽주의와 근대성이라는 거대담론이 파산했다고 선언하면서도 새로운 거대 담론의 구축은 회피한다. 왜냐하면 중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근대가 오히려 중심적인 신화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16) 제주인들은 제주 이외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제주인이 스스로 다른 지역인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제주도를 행정구역으로 표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주도(濟州島)'라고 표기하거나 심지어는 '제주섬'이라고 표기한다. 그리

다양한 지역학적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은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1)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보는 시각, (2) 한국문화의 고형(古型)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시각, (3) 중심에 대한 주변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방된 문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유철인, 1996: 38-46쪽).

지금까지 제주학 연구는 제주학회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둘은 조직 방식과 역할이 구분된다. 제주학회가 개별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했다면, 탐라문화연구소는 일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조직해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학회에서는 1984년부터 해마다 1권씩 『제주도연구』를 간행하다가, 2000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간행했는데, 2004년 26호 이후에는 간행되지 않고 있다(조성윤, 2008: 88-89쪽).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간행하고 있는 『탐라문화(耽羅文化)』를 통해 제주학 연구의 현황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제영역에 걸친 분야별 연구 및 분야간 협동연구를 함으로써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당해분야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년 3

고 그 이유를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의 한 행정적인 지역으로 명명되기 이전의 역사까지 포함하여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최병길 외, 1998: 114쪽'을 참조할 것.

월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인가'되었다. 그리고 1982년 제주대학교의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법정연구소가 된 이래, 매년 1회씩 『탐라문화』를 발행하다가 2004년부터 연2회 발행하는 중인데, 지난 2008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2011년 현재 38호를 발행하고 있다.

1982년에 『탐라문화』를 발행할 당시에는 '연구소는 제주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제영역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라는 규정(제2조 목적)과 '(1) 어문분과: 언어·문학 등, (2)민속분과 : 민요·설화·풍속 등, (3)역사·고고분과: 역사·고고·문화재 등, (4)지리·관광분과 : 지리·관광·교통 등, (5)사회분과: 사회·인류 등, (6)법경분과: 법률·경제·정치 등, (7)예능분과: 음악·미술·무용 등, (8)여성분과: 여성·아동 등, (9)지역개발분과: 제주지역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그 진단 및 방향설정'이라는 분과에 관한 규정(제4조 연구분과)이 있었다(『耽羅文化』 창간호, 1982: 241-242쪽). 그런데 1997년에 '연구소는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로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분과를 '(1)언어·문학분과, (2)민속·예능분과, (3)역사·고고분과, (4)지리·산업분과, (5)사회·문화분과,(6) 법정분과, (7)교육·여성분과'로 통폐합하였다(『耽羅文化』 18호, 1997: 518쪽). 개정 및 분과조정의 이유로는 '연구분야를 명료화하고 학제간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탐라문화』가 인문학 중심의 학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7]

17) 조성윤은 제32집까지의 『탐라문화』 수록 논문의 경향 변화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인문학 분야의 게재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언어, 문학, 민속, 역사 분야가 골고루 증가한 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산업·관광·개발 분야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참여가 크게 위축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대학 내의 연구소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 1990

38호까지 발행된 『탐라문화』에는 일반논문이 271편, 조사보고서가 10편, 기획특집논문 83편, 자료 및 해제가 15편으로, 총 379편의 논문・보고서・자료가 실렸다.

〈표 1〉 『탐라문화(耽羅文化)』 게재물 유형별 현황

분류 / 논문	일반 연구	조사 보고	기획 특집	자료 해제	게재 편수	분류 / 논문	일반 연구	조사 보고	기획 특집	자료 해제	게재 편수
창간호(1982.2)	7		1		8	제20호(1999.12)	10				10
제2호 (1983.2)	8	1	1		10	제21호(2000.12)	6		4		10
제3호 (1984.2)	4	2	5		11	제22호(2002.2)	6		5		11
제4호 (1985.1)	6	2	1		9	제23호(2003.2)	6		5		11
제5호 (1986.5)	6	3			9	제24호(2004.2)	8				8
제6호 (1987.2)	9	1			10	제25호(2004.8)	7				7
제7호 (1988.2)	10			2	12	제26호(2005.2)	6				6
제8호 (1989.2)	5	1			6	제27호(2005.8)	6				6
제9호 (1989.3)	9				9	제28호(2006.2)	8				8
제10호(1990.2)	10				10	제29호(2006.8)	9			1	10
제11호(1991.2)	12				12	제30호(2007.2)	8				8
제12호(1992.2)	11			6	17	제31호(2007.8)	5		5		10
제13호(1993.2)	5		6		11	제32호(2008.2)	7				7
제14호(1994.2)	4		6	4	15	제33호(2008.8)	6		4		10
제15호(1995.2)	5		5	1	11	제34호(2009.2)	4		3		8
제16호(1996.2)	7		4	1	12	제35호(2009.8)	5		6		11
제17호(1996.12)	6		4		10	제36호(2010.2)	5		5		10
제18호(1997.12)	14				14	제37호(2010.8)	7		9		16
제19호(1998.12)	8				8	제38호(2011.2)	6		4		10

년대 이후에는 사회과학연구소, 법과정책연구소, 관광과 경영 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소가 생겨나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당수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탐라문화연구소 활동이 줄어들고, 연구논문 투고 경향도 바뀌었기 때문이다."(조성윤, 2008: 93쪽).

<표 1>[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기 2월과 8월 연2회 발행하기 시작한 제24호부터 게재편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제33호부터는 호당 10편 이상 꾸준히 게재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창간호부터 제8호까지는 조사보고서가, 창간호부터 제16호까지는 자료 및 해제가 실리다가, 점차 기획특집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획특집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조직해서 하나의 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을 제공'한다는 탐라문화연구소의 특징이 좀 더 강화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획특집논문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전개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획특집논문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⑴ 解放後 濟州硏究槪觀(창간호, 제2, 4호, 語文學・民俗分野, 歷史・考古分野, 社會科學分野), ⑵ 濟州硏究의 現況과 展望(제3호), ⑶ 東아시아 文化에 있어서 濟州島의 位置(제13호), ⑷ 三姓神話의 綜合的 檢討(제14호), ⑸ 濟州文學의 定位(제15호), ⑹ 濟州啓錄의 綜合的 檢討(제16호), ⑺ 濟州의 社會와 文化(제17호), ⑻ 제주방언의 제문제(제21호), ⑼ 풍수지리와 장묘문화(제22호), ⑽ 지명과 지명연구(제23호), ⑾ 동아시아 속의 제주 민속(제31호), ⑿『耽羅文化』연구의 발전 방향(제33호), ⒀ 제주도 본풀이(제34, 35, 36호), ⒁ 음식문화(제35호), ⒂ 태평양 지역 연구의 현재와 전망

18) 특집・기획논문 및 조사연구의 경우 학술회의 발표 논문 아래의 종합토론도 게재물 1건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예컨대 제4호에 게재된 기획논문처럼 '解放後 濟州硏究槪觀 (Ⅲ) - 社會科學分野 -'라는 제목 아래, 6명의 필자가 각각의 분야를 맡아 집필한 경우에는 전체를 논문 한 편으로 취급했다. 따라서 제32집까지『耽羅文化』에 실린 논문을 분석하여 총 280편의 논문이 실렸다고 한 조성윤의 논문(2008: 92쪽)과는 총편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려둔다.

(제37호), ⑯ 바다와 신화 : 설문대할망 연구(제37호), ⑰ 타자(他者)가 본 제주도(제38호) 등이 있었다. (1)-(3)창간호부터 제13호까지는 주로 제주도와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4)-(10)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는 언어·문학, 민속·예술, 사회·문화분과에서 제주의 특성으로 손꼽을 수 있는 주제를, (11)-(17)제31호에서 제38호까지는 『탐라문화』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제33호를 제외하고는 제주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 분석 결과는 앞서 밝힌 바 있는 제주도, 또는 그 문화를 보는 세 가지 시각과 비교적 일치한다. (1)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보는 시각이나, (2) 한국문화의 고형(古型)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로 보는 시각에서는 제주의 방언, 설화, 신화, 민속, 환경, 지리, 역사 등에서 제주의 고유한 지역성 내지는 한국문화의 고형(古型)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제주의 특성은 육지와는 다른 창세신화 또는 설화를 가지고 있고, 육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ㆍ’ 음가가 남아 있는 방언을 쓰고 있으며, 육지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감귤을 재배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이 경제구조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섬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은 제주만의 시공간이 있고, 그것이 ‘그에 대응하는 제주인들의 방식, 그리고 제주인들의 역사적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로컬리티 담론 이전에 제주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인의 삶을 규정하고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요인에 주목해왔다. 그 요인들로는 ‘도서성(島嶼性), 삼재(三災; 風·水·旱)의 기후조건, 지리적 주변성, 피억압적·피차별적 역사성, 척박한 농토, 영농규모의 협소성’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사회관계가 섬 사회의 범위에 한정

되는 경향을 낳았고, 무속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수눌음과 같은 공동체적 소규모 협동이 강화되었으며, 남녀간의 유연한 분업구조와 경제적 평등 관계가 비교적 용이했고, 외부 세계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강렬한 원망(願望)을 담은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신행철, 1997: 55-61쪽).

이에 비해서 (3) 중심에 대한 주변사회이면서 동시에 개방된 문화로 보는 시각에서는 제주를 태평양 시대를 열어젖힐 해양 허브로 전제한다. 그 근거로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점과 오끼나와(沖繩)를 비롯한 일본은 물론 환태평양의 여러 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화, 민속, 환경, 지리, 역사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제주가 전통적으로 육지와의 관계 속에서 억압되거나 소외당했기 때문에[19]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역 특수성과 전통문화 보존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역적 특권화와 전통 문화의 화석화를 지양해야만 한다'(김성수, 2008: 5-32쪽)는 주장에서는 로컬리티 담론과 의미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의 로컬리티가 '순응과 반발'이라는 이중성으로 규정되었다면, 변화한 시공간 속에서 제주는 이중적 의미의 중심성, 그리고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로컬리티 담론의 시험장으로서 자신

19) 현승환은 「『탐라문화』의 성격과 발전 방향」에서, "제주도의 문화가 특이하다는 사실은 제주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에, "제주사람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자연환경은 제주문화를 잉태・성장시키고 오늘까지 전승해 왔다. 그 와중에 외적인 변화요인이 없던 것도 아니다. 가깝게는 6・25전쟁, 4・3사건 등이 제주문화를 변모시켰고, 멀리는 200년 동안의 출륙금지령과 몽골의 100년에 가까운 정복기간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제주사람들의 문화를 강화시키기도 하였겠지만 크게 변모시킨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여, 육지와의 억압적 고립적 관계를 통해 제주문화가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현승환, 2008: 52쪽).

의 로컬리티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물론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파생된 삼무(三無)정신과 '즈냥정신'이 공간결정론의 혐의가 짙고, 태평양 시대를 열어젖힐 해양 허브라는 자기 인식이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20] 하지만 최근 『탐라문화』에 실린 기획특집논문들은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면서 타자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다원성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중심성을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1]

요컨대, 지역적인 면에서 제주는 육지에서 분리된 섬이라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껏 제주라는 독특한 시공간의 경험을 변화하는 시공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출해낼 때 제주의 로컬리티가 좀 더 명료하게 정립될 것으

---

20) 김현돈은 「제주문화의 재창조」에서, 개체적 대동주의로 표상되는 해민(海民)정신과 삼무정신, 즈냥정신을 비롯하여 탐라정신 또는 제주정신이라고 규정되는 일체의 것들이 환경결정론의 위험이 있을 뿐더러, 이데올로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1997: 57-66쪽). 그러면서 지역문화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과 문화, 환경과의 변증법적인 상호침투 관계를 인식하여 한국 전체 문화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비교 문화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민정신(海民精神)은 제주인의 정신을 즉자적(卽自的) 대자(對自)로 규정하고 육지의 선비정신과 가족적 대동주의와 대비되는 정신으로 본 송성대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다. 관련 내용은 '송성대(1996), 「제주인의 시대정신」, 『제주리뷰』 2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91-99쪽'과 '송성대(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 精神文化의 地理學的 了解』, 도서출판 제주문화'를 참조할 것.

21) 이런 맥락에서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의 『탐라문화』 기획특집 논문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자기 정체성의 재해석이라는 면에서 제주도 본풀이(제34, 35, 36호)와 음식문화(제35호), 바다와 신화 : 설문대할망 연구(제37호)가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타자의 중심성 인정이라는 면에서 태평양 지역 연구의 현재와 전망(제37호)과 타자(他者)가 본 제주도(제38호)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담론의 공간만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과학분야의 탐구와 융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학 연구자들이 제주학 연구가 신화학과 문화학 등 인문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조성윤, 2008: 94-100쪽)[22]도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Ⅳ. 제주학 연구로서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가능성과 방향성

철학을 인간 보편적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학문(Universal Science)이라고 말하지만, '철학'만큼 그 용례가 다양한 용어도 드물다. 인간의 존재 근원을 묻는 형이상학에서부터 개인적인 실천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학'이란 말이 경계 없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1) 각각의 한정된 대상 영역을 가지는 개개의 특수과학과는 달라서, 자연 및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성을 탐구하고, (2)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실천적인 태도를 문제로 삼고, (3) 단순한 직관이나 체험이 아닌 합리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과학성을 갖춘 학문으로 정의된다(尹明老, 1991: 428쪽R). 이 점에서 철학은 세계관이며, 살아 있는 사상이며, 인식론・논리학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철학하기'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22) 해당 부분은 '4.『탐라문화』의 활성화 방향'인데, 여기서 연구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손꼽는다. 그에 따르면, "『濟州島硏究』가 보여준 최대의 강점은 제주도의 동 식물, 기후, 농업, 축산업 분야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면서 자연과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과 소통했다."는 점인데, 상대적으로 『탐라문화』는 자연과학분야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되짚고 있다. 이 문제의식은 인문사회학 분야의 제주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원론적인 전제가 제주에서는 아직 풍부한 담론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행해진 각 분과학의 연구결과에서 철학이란 용어가 더러 등장하기는 하지만[23], 제주 또는 제주인의 세계관과 그 실천적 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에 참여하는 철학자들이 많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 용어 개념 문제 다음으로 제주학 총론의 쟁점이 되는 것은 주체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학은 1차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다. 연구 장소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학문'이라는 2차적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연구주체에서 '제주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3차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행복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어긋나기도 한다. … 제주인 고유의 공동체 특징으로는 '수눌음', '궨당'으로 대표되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파당성이라 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제주문화의 역사적 복합성과 다층성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한다. … 하지만 제주문화의 역사적 복합성과 다층성을 표상하는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이상하게 지역특수성에 수렴되고 만다. 제주사람의 자기정체성을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분리주의적 속성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연구역량과 잠재적 연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도 생길 지경이다. … 제주라는 지역의 출신/거주 여부가 학문적 잣대로 오해된다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객관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수, 2008: 13-15쪽).

---

23) '허남춘(2008),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91-122쪽'에서는 제목에 '철학'이라는 용어를 명시했고, '최병길 외(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硏究』 제15집, 濟州學會'에는 철학적 고찰 부분이 실려 있다. '제주와 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밖에도 내용상 철학적 주제, 반성을 다룬 연구저작물은 다수 있다.

제주학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제주에서 철학하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에서 철학을 한다면, 1차적으로 제주라는 지역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계관을 비롯한 사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철학이, 3차적으로는 제주 사람이 하는 철학이 있을 수 있다. 인용문에서처럼 이 세 단계가 행복하게 일치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38호가 발행된『탐라문화』에 게재된 철학분야 연구논문의 현황에서도 확인되듯이, 국내철학전공자의 논문은 전체 게재물 379편 가운데 8편으로 2.11%에 불과하다.[24] 그리고 이 8편 중에서 제주도외 지역 연구자의 논문은 김옥희(金玉姬)의「제주도(濟州島) 천주교(天主敎)의 수용(受容) 전개과정(展開過程)」1편뿐이다.

물론,『탐라문화』는 '제주도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의 제영역에 걸친 연구' 내지는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취지로 하는 대학 내 연구소의 학술지이므로, 제주대학교에서 철학전공자들이 차지하는 숫자를 고려하여 위의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79편 가운데 0.26%에 해당하는 도외 철학전공자의 논문 한 편은 '제주에서 철학하기'란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한다.

---

24) 金玉姬(1987),「濟州島 天主敎의 受容 展開過程」,『耽羅文化』제6호, 141-178쪽; 윤용택(2004),「제주인과 오름-오름의 총체적 가치평가를 위한 시론」,『耽羅文化』제24호, 153-178쪽; 김현돈(2004),「제주를 찾은 외지 미술인-그들의 삶과 예술」,『耽羅文化』제25호, 115-132쪽; 윤용택(2004),「21세기에 다시 모는 제주도 돗통시 문화-생태적 삶의 원형과 그 현대적 변형을 찾아서」,『耽羅文化』제25호, 133-162쪽; 윤용택(2006),「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耽羅文化』제29호, 231-262쪽; 윤용택(2007),「'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耽羅文化』제30호, 147-178쪽; 강봉수(2009),「제주의 '으망진' 사람의 인성적 특성과 도덕적 덕성-설문조사를 통한 시론적 탐색」,『耽羅文化』제34호, 281-320쪽; 윤용택(2010),「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耽羅文化』제37호, 317-352쪽.

사실,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제주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거나 제주 출신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 …제주에 관련된 연구물을 필요로 할 때 많은 이들의 우선 관심이 제주대학교에 쏠리게 된다. 사실 그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그 지역대학에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제주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제주 관련 자료는 제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가공되어야 한다. … 연구의 문제로 들어가면,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곧 연구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 관한 인문학 연구 논문의 문제점을 육지사람(?)이 지적했을 때, 제주 사람이 직관적 인식을 들이대며 '너 제주에 대해서 잘 알어'라고 나오면 그 다음 대화가 막힌다. 일반인도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곧잘 등장하는 것인데, 육지의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손들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동네 사는데…'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다. …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는 논리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 …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을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한창훈, 2008: 36-40쪽).

한때 서양 인문학 전공자들이 동양학이 직관적 방법론을 취한다고 비판하고, 동양학 전공자들이 그것 자체가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일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학 연구자들에게는 보편적 인식을 강조하는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학의 각 분과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이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직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건, 어느 지역에 거주하건 제주에 관심을 가진 철학분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을 각 분과에서 전담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보편적 진리나 추상성을 위주로 하는 철학을 형상성 위주의 신화에서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 찾아내 규명하려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철학적 사유'라 한 이유는 이 글이 보편 진리나 지혜, 지성, 철학원리 등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인간 사유의 본원적 측면을 주체적으로 살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였다(허남춘, 2008: 116-117쪽).

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이 이상적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제주학 연구에 철학 전공자가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탈중심성을 원리로 하는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주학 제반 분과 및 연구 주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철학전공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주 출신이 아니고, 제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제주에 관심을 가진 철학전공자들이 제주학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철학전공자의 입장에서 제주학은 아직 미개척지이면서 그만큼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예컨대 이미 사회과학 분과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제주 사회를 통해서 중심/주변, 사회/개인, 권력/소외의 문제를 진단하고 검토해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탐라문화(耽羅文化)』에 게재된 논문들의 면면을 대충 살펴보더라도, 어문학 분과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제주 방언 연구를 기초로 언어분석철학 분야의 연구를, 민속학과 문화학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신화·무속과 해녀 연구를 기초로 한국철학 분야의 연구를, 역사학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동아시아 역사 속의 제주 연구를 기초로 역사철학 분야의 연구를 할 수도 있다.[25] 그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 각 분과의 제주학연구자들과 담론이 촉발되면, 관련 연구자들의 담론으로 확산되어 제주가 아닌 곳에서도 제주를 소재 또는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방향성을 동양철학 전공 분야에 제한해서 말한다면, 시기적으로는 (1) 지금까지 관심이 집중되었고 많은 연구성과가 제출된 신화·무속적 측면과 연계한 상고시대, 곧 탐라국 1천 년 간의 제주와 제주인, (2) 고려 숙종 10년(1105) 이후의 제주와 제주인, (3) 조선시대의 제주와 제주인, (4) 근현대의 제주와 제주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신화·무속은 민속학 분야만이 아니라 한국고대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을 뿐더러, 제주와 제주인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삼별초 항쟁과 원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주와 제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선시대에 유배지, 말의 산지로 자리매김 되고 급기야는 출륙금지령까

25) 최경섭은 「엄밀한 학이 아닌 엄연한 지역학으로서 철학 제1부-후설의 후기현상학에서 생활세계개념의 지역학적 개진」((2010), 『철학』 제103집, 한국철학회)과 「엄밀한 학이 아닌 엄연한 지역학으로서 철학 제2부-학문과 예술의 초월론적 근간으로서 '지역'과 철학의 근본문제들」((2010), 『철학』 제104집, 한국철학회)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상학을 기초로 한 지역연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세부전공을 넘어선 제안을 해 본 것이다.

지 겪으면서 제주와 제주인이 어떤 사유(思惟)를 했는지,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유배 온 조선 지식인들이 타자(他者)로서 제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각 시기 한국철학 분야의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시대말기 민란과 일제강점기의 도일(度日)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꿈꾸었던 세계관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리적인 고립성 때문에 동양철학의 주류를 차지하는 유교와 도교, 불교 어느 분과에 한정하여 한국철학 내지는 동양철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연구대상을 제주에서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1) 민속학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도교와 제주의 무속, 또는 민란 등 저항의식의 기초로서 동아시아 도교와 제주 고대 사상의 비교 분석, (2) 무가에 나타난 불교적 신화소의 연원과 불교 전래, 태고종 중심의 제주 불교와 한국 선불교의 분석, (3) 입도(入島) 외지(外地)학자들의 유학, 제주인의 문집 속에 나타난 유학 등을 주제로 하면, 제주와 관련된 유(儒)·불(佛)·도(道) 연구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에서 철학하기는 동서양 철학 어느 분과에서도 가능할 뿐더러, 로컬리티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큰 로컬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제주라는 작은 로컬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이 미시적 접근이므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로컬이 글로벌화할 수 있는 주요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인의 관점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적 중심과 맺어온 주변부 관계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나오는 말

동·서양 할 것 없이 철학은 반성(反省)의 학문으로 인식되어왔다. 외계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으로부터 철학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서양도, 인륜질서가 무너지는 힘의 논리 앞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는 데서 도학(道學)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동양도 결과적으로는 그 중심에 인간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반성과 이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인간학이며, 인문학(humanitas)이다.

> 이처럼 인문학은 인간다움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시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좌표와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좌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다. …… 인문학은 보편성을 지향하되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김석수, 2004: 209-210쪽).

'제주에서 철학하기'라는 주제도 사실은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제주를 거쳐 갔거나 생활하고 있는 철학전공자들은 2천년이라는 시간과 한·중·일 지역의 중앙부라는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제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성을 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의 족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요청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대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998년 제주대학교에 철학과가 설치된 이래, 철학전공자들이 '대중의 철학화, 철학화의 대중화'를 목표로 제주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설된 제주희망대학 인문학 과정[26]은 제주의 소외계층을 위한 대중 철학교육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 과정에는 철학만이 아닌, 역사, 문학, 글쓰기, 예술 등 인문학 분야 11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인간과 철학, 철학과 현실, 동양사상의 이해, 문화와 예술' 등 철학 관련 강좌가 기초였다. 그런데 이 강좌를 수강한 제주인들이 "철학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맑은 눈과 밝은 귀, 그리고 불의를 보면 외칠 수 있는 입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윤용택・하순애, 2008: 117쪽)고 하는 만큼, 제주에서 철학하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주희망대학 인문학 과정의 보고서를 겸한 논문에도 '왜 하필 제주지역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소외계층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꼭 지역적 문제의식에 기초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설된 강좌 가운데 하나인 '인간과 철학' 강좌의 목표를 보면, '제주에서 철학하기'가 현실적으로 겪는 초점불일치가 드러난다.

> 따라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신들의 삶의 토대인 지역의 환경과 역사와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
> 그리고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반성적이고 무비

26) "제주희망대학 인문학과정은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6년에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간(2006. 6. 22.-12. 29) 서귀포시 지역에서 행해졌고, 2008년에는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개월간(2008. 2. 28-10. 30)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윤용택・하순애, 2008: 101쪽).

> 판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잘못된 언어(言語), 사고(思考), 관습(慣習), 제도(制度) 등으로 인한 질곡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한 삶의 목표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윤용택 · 하순애, 2008, 107쪽).[27]

인용문의 첫 단락에서는 제주의 지역성에 기초한 제주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둘째 단락에서는 보편학으로서의 철학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성과 보편성이라는 우리 시대 인문학 내지는 철학의 과제를 정당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근대의 기획에 기초한 계몽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할 여지도 있다.

>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인문학 위기 담론을 많이 언급해왔지만, 인문학의 위기는 위기 담론 그 자체에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안과 바깥의 비판적 종합을 통해 우리의 인문학사를 작업해나갈 때 극복 가능하듯이, 지역 인문학의 위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저항의 시대와 건설의 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거나 버려진 지역 인문학의 자산을 발굴 · 정리 · 분류하고 분석 · 평가하여 단절된 인문학의 역사를 복원하고 오늘의 현실과 관계 속에서 반성적으로 비판하여 세계의 보편성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문학사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인문학의 '구체적 보편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김석수, 2004: 225쪽).

제주에서 제주인으로서, 또는 제주인과 함께 철학한다는 것은 '구체성'을 내세워, '제주는 특이하다. 그러므로 좋다.'는 식의 결론을 끌어내거나, 그 이론적 근거로서 제주에만 통용되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

27) 강조 표시는 이 연구의 논지와 관련하여 임의로 표시한 것임.

아니다. 동시에 '보편성'을 내세워, '철학은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좋다.'는 식의 결론을 끌어내거나, 그 이론적 기초인 글로벌의 세계관을 제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일방적으로 계몽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분열주의나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이라는 주제의식으로 검토해보았듯이, 제주와 제주인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앞으로 얼마 동안일지 모르는 시간 속의 한 좌표인 '지금'과 한반도 서남단의 도서라는 공간과 한·중·일 중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공간 속의 한 좌표인 '여기'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좌표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중이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나 '지금, 여기'인 좌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간의 경계를 기반으로 한 구체성도,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보편성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밀한 반성과 구체적 실천이 곧 제주에서 철학하기의 목표이자, 글로컬(Glocal)의 이상이다.

참고문헌

『耽羅文化』 창간호-제3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지현(2010), 「지구화와 국민(민족)국가-경계의 문제」, 『사회와 철학』 제19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김석수(2004), 「구체적 보편성과 지방, 그리고 창조학으로서의 인문학」, 『사회와 철학』 제8호, 사회와 철학연구회.

김성수(2008),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치완(2011), 「동양적 생태담론 가능성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대안적 패러다임론과 오리엔탈리즘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歷史와 實學』 44집, 歷史實學會.

김현돈(1997),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리뷰』 3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류지석(2009), 「로컬리톨로지를 위한 시론-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로지」, 『한국민족문화』 3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규택(2009),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손동현(2008), 「융복합 교육의 수요와 철학교육」, 『철학연구』 제38집, 철학연구회.

송성대(1996a), 「제주인의 시대정신」, 『제주리뷰』 2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송성대(1996b), 『濟州人의 海民精神: 精神文化의 地理學的 了解』, 도서출판 제주문화.

신승환(2009),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硏究』 제14집, 濟州學會.

유철인(1996), 「지역연구와 濟州學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濟州島硏究』 제13집, 濟州學會.

尹明老 감수(1991), 『最新哲學辭典』, 日新社.

윤용택 · 하순애(2008), 「소외계층을 위한 대중 철학교육의 의미-'제주희망대학 인문학 과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철학윤리교육연구』 24권 40호,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이명수(2010),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인문학적 공간-로컬리톨로지 도달에 관한 동양학적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상봉(20009),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의 전망」,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재봉 외(2009),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2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장희권(2009), 「문화연구와 로컬리티-실천과 소통의 지역인문학 모색」, 『비교문학 제 47집』, 한국비교문학회.

조성윤(2008),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최경섭(2010a), 「엄밀한 학이 아닌 엄연한 지역학으로서 철학 제1부-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생활세계개념의 지역학적 개진」, 『철학』 제103집, 한국철학회.

최경섭(2010b), 「엄밀한 학이 아닌 엄연한 지역학으로서 철학 제2부-학문과 예술의 초월론적 근간으로서 '지역'과 철학의 근본문제들」, 『철학』 제104집, 한국철학회.

최병길 외(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硏究』 제15집, 濟州學會.

한창훈(2008),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허남춘(2007), 「제주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허남춘(2008),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현승환(2008), 「『탐라문화』의 성격과 발전 방향」,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Abstract

Current View of Studying Philosophy in Jeju

-Centering on the Review of Locality Discuss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Studying Jeju Study

Kim, Chi-Wan*

Today convergence and locality discussion are the main stream of our academic world. These discussions are evaluated as ideal in that they affirm the desire and presence of human beings. However it is a question if the ideal of convergence and locality can be realized. It's because we still come to discover not a big relationship that makes mutual harmony but a mutually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global and between 'episteme' and convergence.

As a result of examination of the planned special papers in 'Tamla Munwha(Culture)' on the basis of this critical mind, there is a trend to be devoted to the dual principle of plurality and self-centeredness which are the core of locality discussion. However there are only 8 papers that are written by those who major in philosophy in Korea and which is only 2.11% of all the 379 articles in 'Tamla Munwha(Culture)' whose issues that have been published until now are 38 issues. In fact, even though 'the study about the culture of Jeju' is the subject, there is no need to focus on revealing the peculiarity of Jeju and it is not that researchers from Jeju should conduct the study. However consequently the major themes in which Korea, a local, can be globalized can be selected obviously when the subject is Jeju, a small local, rather than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subject is Korea, a large local.

Jeju and Jeju residents are placed 'now' which is coordinates in the time of 2000 years and the time whose length from now on is not known and 'here' which is coordinates in the space which is an island in sou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pace which is a geo-politically important region located in the center of Korea, China and Japan. These coordinates is not fixed and unchangeable but is changing moment by moment as they have been, but they are also coordinates that are 'now and here' always. Therefore the concreteness based on the border of time and space and the universality that broke down the border of time and space can both be accomplished 'now and here' and sh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the strict reflection and concrete practice that makes it possible are the goal of studying philosophy in Jeju and the ideal of Glocal.

Key Words

Jeju Study, Tamla Munwha(culture), Local, Locality, Localitology.

교신 : 김치완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 dasan@jejunu.ac.kr 전화 : 064-754-2754)

논문투고일 2011. 06. 10.
심사완료일 2011. 07. 27.
게재확정일 2011. 08. 17.